

2천년대 西南圈 教育의 요람, 木浦大

裴 鍾 茂

(木浦大 總長)

1. 沿革과 現況

호남평야를 가르며 달리던 호남선 열차가 마침내 긴 숨을 토하며 멈추면 노령산맥의 마지막 봉우리인 유달산이 그 위엄과 자태를 드러내 보이는 곳, 藝鄕의 도시 목포권에 위치하고 있는 목포대가 대학다운 대학으로 출발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본교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0월에 목포사범학교로 학교의 문을 연 이래 '63년 목포교육대학, '78년 목포초급대학으로 개편되기까지 教育立國의 초석을 다지는 데 일익을 담당해 오다가 고급인력의 육성·배출을 바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여망과 애항심에 힘입어 '79년에 4년제 國立木浦大學으로 발돋움하였다. 그후 10년 동안 이 지역의 교육·연구·문화 센터로서 꾸준히 성장·발전해 오다가 마침내 '90년 3월 1일 이 지역의 숙원이던 종합대학교로 승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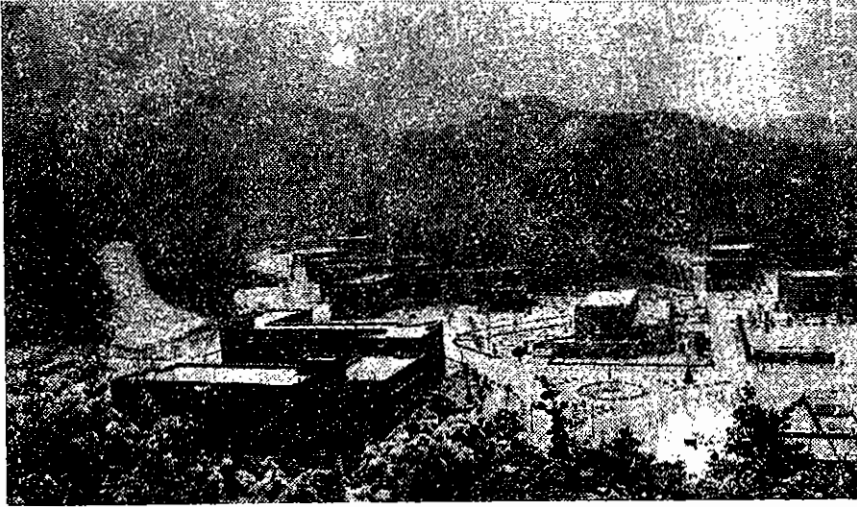
본교가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 지식, 기술, 정보, 문화를 제공하고 창달하는 종합대학교로 성장하기까지의 반세기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진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 수 많은 역사의 기복을 헤치고 일구어낸 이 지역민의 愛鄕運動과

産學協同 精神의 결정체였다.

현재 본 대학은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 캠퍼스와 목포시계에서 북쪽으로 10km 거리에 있는 호남의 명산으로 꼽히는 승달산 기슭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총 684,421m²의 도림 캠퍼스를 조성하여 5개 단과대학(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39개 학과, 입학정원 1천 3백 여 명에 이르며 '88년 7개 학과로 출발했던 대학원도 일반대학원 15개 학과, 경영·행정대학원 6개 학과로 늘어났다. 또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소, 임해지역개발연구소, 도시문화연구소, 연안환경연구소 등 10여 개의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8명의 교수, 6백 여 명의 교직원과 6천 여 명의 학생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大學教育을 지향해 가고 있으며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자기발전을 꾀하고 있다.

2. 教育環境

최근 들어 서남해안 개발과 더불어 下塘 지구



◀ 木浦大는 西海岸時代の 거점이요, 西南國 교육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地域特性을 살리는 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한다(사진은 목포대의 雪景).

신도심 개발, 許沙島 신의항 건설, 영암의 대불공단 조성 등으로 2천년대에 인구 1백만 도시로의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서해 남단의 관문 목포가 西海岸時代의 중심도시로서 앞으로 전개될 중국과의 적교역 시대에는 국제무역의 중추적 거점도시가 된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교가 이 지역의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에 부응하고 현대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다변화하는 정치·경제적 여건 속에서 대학이 첨단과학시대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대의연한 사고방식과 운영체제로는 더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환경이나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본교는 大學의 進路를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고 학생들에게 실질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공계 학생들의 실험·실습 기자재와 어학공부를 위한 어학실습 기자재의 확충, 도서관 열람실의 24시간 개방과 단대별 도서관 기관, 학생기숙사의 제반 편의시설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국제화시대에 즈음하여 본교는 國際의 理解를 증진시키고 학술·연구 발전과 교수·학생의 상호교류, 학술자료 교환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미국 남미시시피주립대, 중화민국 봉강대, 중국 연대대, 일본 나고야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수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학문의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매년 20여 명 이상의 교수들이 국제 학술세미나에 참가하는데, 논문 발표자에 한하여 여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실적에 의해 외국에서 학문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기 1년 코스 3명과 단기 3개월 코스 3명에게 그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國際交流가 확대될수록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화시대 속에서 국제교류가 위축된다는 것은 대학발전의 退步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제교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3. 地域社會와의 활발한 交流

본교가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국내 최초로 直選 학장을 선출한 대학으로서의 자부심이다. 이는 본교가 어느 대학보다도 '大學의 民主化'가 선행된 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동안 본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은 오는 '97년 목포 개항 1백돌을 맞아 낙후된 목포를 새롭게 발전시켜 한때 6대도

시 중의 하나였던 '옛 영화를 되찾는 일'에 주역이 되고자 목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 스스로가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향을 가꾸도록 선도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본교는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라는 측면에서 또다른 자긍심을 갖고 있다. 地域社會 발전에의 기여는 지방대학의 중요한 존재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교는 이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발표 등을 통해서 봉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 때 중국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에 대비해 교수들과 이 지역 상공인들이 함께 중국 현지를 답사하고 학술회의를 개최, 현지 관계자들과 교류를 가진 것은 學庶協同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대표적인 활동은 인근 시·군 지역 공무원 실무교육, 지방대학으로서는 최초로 개최한 지방의원 워크샵, 수년간 개설·운영하고 있는 여성대학과 시민대학, 서남해 도서지역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지역사회와 민족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도서문화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들의 활발한 연구활동 등을 들 수 있다.

創造·德義·奉仕를 교시로 삼고 있는 본교는 對중국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 시대'에 대불공단을 비롯한 대단위 산업기지요,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통해 바다와 육지를 잇는 무역 중심도시가 될 이 지역사회를 위해 대학의 새로운 정보 및 시설물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역소재 기업 사원연수 등을 실시하고 목포 연안의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 개발 및 수산·해양 관련 연구, 연안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계획이다.

4. 向後 學校運營 計劃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봉사에 있다. 이는 중세대학의 自治의 정신, 근세대학의 研究의 자유, 그리고 현대대학의 社會에 대한 責任이라는 대학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근본

적인 대학의 기능과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본교는 대학 自體評價 연구팀을 구성하여 대학의 심장부인 대학본부와 신경조적인 각 연구소 및 부속시설을 냉철하게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진지한 자세로 그 기초를 닦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1천 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1천 5백 석 규모의 중앙도서관 시설 확장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별 도서관 개설·운영, 연구와 교육의 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수한 교수확보와 연구환경 개선 등을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西南陔 대학교육의 요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먼저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善意의 발전적 경쟁풍토를 조성할 것이다.

둘째는 勉學風土 조성을 위해 어학연구소·영상도서실 및 위성수신시설 설치, 전산소 교육기자재의 확충,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운영방법의 개선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는 企劃室 운영의 강화이다. 본교는 기획실이 법정화되기 전부터 국립대학으로서는 비교적 일찍이 기획실을 운영, 많은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대학 설계를 위해서는 기획실의 역량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넷째는 대학 운영의 民主化이다. 대학내 각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 교수평의회 역할의 중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에 힘쓰고자 한다.

다섯째는 醫科大學 신설에 총력을 기울여 이 지역 의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의과대학의 신설은 본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숙원 사업이다. 현재의 열악한 지역 보건 수준과 국내 최다의 광범한 도서 배후지의 중심도시인 목포의 위상을 감안해 볼 때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대불공단 배후도시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尖端科學·工學 등의 학과 증설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공과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